

一般社會教育의 變遷과 課題

李 榮 基·金 泰 泳
(一般社會科)

I. 序 論

「社會科」(social studies)가 現代教育思潮의 寵兒로 1920年代 美國에서 그 出顯을 보았으나 현재 美國內에 있어서도 理論의 體系化 내지 定型化가 되지 못한채 多樣한 形態로 發展되어 오고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美國의 「社會科」가 解放後 軍政時代에 民主主義 教育에 대한 欲求, 새 教育思潮 導入에 대한 欲求의 澎湃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社會現實 내지는 教育的 現實에 대한 면밀한 檢討가 없이 導入되었다. 그 後 오늘날까지 많은 論亂 속에서 어느 教科 보다도 混亂이 加重되어 왔다.

그 동안 軍政下의 “教授要目” 이후 文教部令에 의한 公式的인 三次의 教育課程 改編이 있었는데 改編이 있을 때 마다 論亂이 많았고 事實上 變化도 많았다. 社會科의 基本目標에 관한 큰 變化는 없었다. 하더라도 그 細部 目標에 있어서는 많은 變化가 있었고 더욱이 社會科의 各 分野의 位置나 名稱은 改編될 때 마다 바뀌었다.

이런 「社會科」의 程度 以上の 變化는 그 變化 自體에 問題性이 內在하고 있음을 意味한다. 社會科 教育에 관한 定立된 理論體系나 教育課程編成原理의 變化때문에 오는 變化라기 보다는 社會科教育 自體內部的 理論의 論爭 즉 分科(subject)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統合(integration)으로 할 것이냐 (또는 融合(fusion)으로 할 것이냐) 또한 이것들을 部分的으로 適用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全體的으로 適用할 것이냐 또는 混用으로 할 것이냐 等の 論爭이었다. 한편 「社會科」가 政策教科의 性格을 띠고 있기는 하나 특히 「一般社會科」는 더욱 顯著하여 國家政策 및 社會的 要求에 가장 敏感한 反應을 일으켜 社會科教育의 理論과 妥協할 겨를이 없이 改編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與件에서 「社會科」의 改編이 계속되어 왔지만 中等學校에서는 一般社會(公民)歷地理 分野의 三分法이 여전히 支配的이었다.⁽¹⁾ 이들 三分野中 「歷史科」「地理科」는 그 學史, 學問性의 背景에 비추어 名稱上 理論의 餘地가 없었으나 「一般社會科」는 學問上 數個의 社會科學을 背景으로 하는 教科라는 點에서 統合的인 社會科學論이 定立되지 못하고 있는

(1) 康宇哲, “韓國社會科 教育의 30年” 社會科教育 第10號, 韓國 社會科 教育會, 1977, p. 4.

狀況 속에서는名稱에 있어學問上適合性問題가論議될수밖에없었다. 비록經驗主義 내지實用主義的立場에선敎科라하더라도어떤敎科이든各個特殊한學問을그背景으로하고있으니만큼그學問的背景이學問으로서弱化될때는그敎科의位置나性格이크게흔들릴수밖에없다.

「一般社會科」는「社會科」로서가지는論爭의問題를안고있을뿐만아니라學問上背景의難點 때문에敎育課程上發展의混亂이나社會的 및敎育的認識의不足에서오는問題를안고왔던것이다.

그리하여本論議에서는그동안一般社會의敎育課程과現行一般社會의敎育課程을檢討하는가운데그當面課題를點檢해보는同時에「一般社會科」에대한未來的要請즉期待를감안해서「一般社會科」의基本方向을摸索해보자는것이다.

II. 一般社會敎育課程의變遷

1. 「敎授要目」(1946)——公民科胎動

日帝時代의修身, 歷史, 地理는軍國主義, 國家主義, 植民主義的要素가強力히반영된敎科이었다. 解放과同時에우리는民主主義, 民族主義, 平和主義를理念化했고그것을敎育의理念으로하지않으면안되었다.

이를위한先導的인敎科로서公民, 歷史, 地理를統合한「社會科」라는새로운形態의敎科가出顯하게되었다. 이중에서도특히民主主義敎育을위해새로擡頭된分野가「公民」이었고이것이日帝의「修身」에代置되어出顯하게된것이다.

그렇다고해서「公民」이「修身」과같은道德的規範을당라한것이아니고政治, 經濟, 社會, 文化등과이와關聯된民主主義의倫理가이것들과함께統合되어있었다. “公民”이라는말은民主主義의資質을가춘民主國家의市民또는國民이라는意味를가지고있다. 賢明하고有能한市民즉公民을기르는問題는敎育全般에거친問題이다.

「社會科」는人間性敎育의主導的敎科目이요敎育의一般目標達成에直接的으로符合되는敎科目이므로모든敎科目의中核的位置를占하고있다. 이러한論旨에서볼때「社會科」分野중또한中核的位置를占하고있는것이「公民」이다.

公民敎育은한사람한사람이그가살고있는社會의成員으로서갖추어야할性格을기르는同時에그生活에必要한知識과能力을기르는것을目標로하고있다.⁽²⁾

公民敎育을理解하기위해서「社會科」는어떤敎育的性格을가지고있는가를먼저檢討해볼必要가있다.

(2) 森秀夫, 中等社會科敎育研究, 日本, 學藝圖書株式會社, 1975, p. 8.

「社會科」는 公民, 歷史, 地理를 새로운 教育思潮에 따르는 教育課程의 構成原理에 의하여 構成한 統合教科인 것이다. 따라서 「社會科」는 “統合性的 強調”와 “社會性的 強調”라는 現代教育思潮上的 두 가지 原理를 具顯하는 것이다. (3) “統合”은 教育哲學의 問題이지만 教科技術面에서는 教育內容의 組織問題이요 「社會科」는 이런 것의 模型的 表現이었다. “社會性”은 “民主主義社會에서의 有能한 市民을 育成”한다는 「社會科」의 目標的 表現 樣式으로 民主主義社會化를 強調하는 것이다. (4)

그러므로 「社會科」는 難解한 知識體系를 강조하는 教科系統主義를 止揚하고 生活經驗主義의 立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5)

이러한 性格을 가진 「社會科」이었지만 이에 대한 우리 教育界의 認識不足의 狀況에서 美軍政下의 文教部 編修關係 顧問이었던 앤더슨(Anderson)大尉의 忠告에 따라 美國에서도 가장 急進的인 콜로라도 州 덴버市的 社會科教育課程을 輸入 模倣케 되었다.

國民學校는 그런대로 큰 무리는 없었으나 中學校의 경우는 統合된 「社會科」教科書를 만들기도 어려웠거니와 이것을 統一的으로 擔當할 教師가 養成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教科表現上으로는 「社會生活科」라 했지만 實際, 內容上으로는 分科로 組織되어 있었고 擔當도 分科別로 할 수밖에 없었다.

「社會科」의 施行過程을 보면 軍政廳 文教部の 「教授要目」이 公布(1946. 12. 7)되어 「社會生活科」가 正規科目으로 採擇되었고 그 다음해에 「教授要目集」이 發刊(1947. 1. 10)됨과 동시에 이해 新學期부터 教科書 없이 施行했고 그 이듬해인 1948년에 教授要目에 의한 教科書가 나왔으나 內容上으로는 公民, 歷史, 地理로 分科되어 있었다. (6)

「社會生活科」라는 公式 名稱은 1949年 教育法이 制定公布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7)

公民, 歷史, 地理의 三分野중 「社會科」의 統合의 精神이 部分的으로나마 잘 나타난 것이 「公民」이었다. 이것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 民主主義의 倫理등이 民主的 社會化라는 目標下에 統合하려고 努力한 面이 보인다. 教科書의 內容을 보면,

中學校 一學年에서는 「중등공민 I」이라고 하며 家庭生活, 學校生活, 鄉土生活 및 其他共同生活, 共同生活의 規範, 個人生活과 國家와의 關係등 共同生活”을 中心으로 한 內容이었다. 二學年에서는 「중등공민 II」라고 하여 政府, 國家, 政治制度와 運營, 政治倫理등 政治生活를 中心으로 하고 社會, 文化(教育, 科學, 出版, 藝術, 宗教)를 附加하고 있다. 中學校 三學年에서는 勞動, 生産, 消費, 交換등 組織生活를 中心으로 하고 政治, 社會을 一部 附加하고 있다.

(3) 韓基彥, 社會生活科教育. 載東文化社 1960. p. iv.

(4) 上揭書 v-vi.

(5) 森秀夫, 前揭書 p. 39.

(6) 朴光熙, 韓國 社會科의 成立過程과 그 課程變遷에 관한 研究, 1965, pp. 17-39.

(7) 康宇哲, 前揭書 p. 5.

中學校는 「公民」이라는 이름으로 外形上 統合의 形態로 보이나 內容上으로 보면 社會, 政治, 經濟 中心別로 學年別 分野化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一部 部分的인 統合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統合을 위한 努力이 뚜렷했다.

高等學校 一學年에서는 「政治論」이라고 하여 “政治를 中心으로 하고 社會, 文化(教育, 思想)을 附加하고 있다. 二學年에서는 “經濟”를 中心으로 하고 社會(社會改善)를 附加하고 있다. 三學年에서는 「倫理編」이라고 하여 道德論, 社會論, 文化論으로 區分하여 倫理, 哲學, 社會, 文化가 綜合 되어 있다.

高等學校는 中學校와는 달리 統一의인 教科 名稱을 使用하지 않고 政治, 經濟, 倫理의 分科 名稱을 쓰고 社會, 文化를 附加했고 倫理編에서 거의 같은 比重으로 倫理, 社會, 文化가 動員되고 있다. 따라서 高等學校에서는 더욱 分科化한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2. 第一次教育課程(1955)——「一般社會」의 出顯, 「道德」教科 設置

1950年代의 6.25戰亂은 모든 領域에 놀라운 衝激을 안겨 주었다. 가늠 수 없는 思想的 混亂, 糊口之策도 어려운 經濟的 破綻, 물밀듯이 들어오는 西歐의 物質萬能의 利己의 思潮 등으로 해서 말할 수 없는 社會的 混亂을 가져왔다. 이것은 곧 國家的 政策의 問題요, 教育의 問題이었다. 따라서 가장 重要的 當時의 教育的 課題가 反共思想의 鼓吹, 道德精神의 昂揚, 經濟的 復舊를 위한 人力開發(技術教育)등이었다.⁽⁸⁾

이러한 教育的 課題解決에 適合한 教育課程改定の 作業이 1953年 休戰後 本格的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때 가장 컸던 社會的 내지 教育的 要請은 道德教育이었다. 지금까지의 社會科教育이나 公民教育을 가지고는 極度에 달한 道德의 퇴폐와 思想的 混亂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었다.⁽⁹⁾ 「社會科」는 美國의 경우 1920年代의 轉換期에 誕生해서 轉換期의 問題를 克服하게 한 教科이었으나 우리의 當時 現實에서는 그러한 社會的 機能을 發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道德教育을 包含하고 있던 公民教育도 마찬가지로 보았다. 그리하여 道德科의 設置가 一次教育課程 改編의 中心 課題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第一次教育課程이 이루어졌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1949年 우리 나라의 教育法이 制定된 후 文敎部의 意思에 의하여 各級學校 教育課程時間配當 基準令이 公布(1954. 4. 20) 되었고 이것을 基準으로 해서 그 다음해에 第一次 教育課程이 公布되어 그 다음해인 1956년부터 部分的으로 始作되었다.⁽¹⁰⁾ 「道德科」는 그 緊急性에 비추어서 1954년부터 과해 졌다.

이 第一次教育課程이 改編됨에 따라 初等學校 「社會生活科」를 우리 손으로 統合하는데 成

(8) 金泰泳, “1950年代의 道德教育論爭과 「道德科」設置에 관한 研究”, 金桂淑 博士 古稀紀念論叢, 1975, pp. 170-171.

(9) 上掲書 p. 171.

(10) 咸宗圭, 教育過程 沿革調查, 1974, pp. 233-238.

功하였다.

中學校에서의 「社會科」는 “教育課程時間配當 基準令”에서 教科上 表現은 「社會生活科」라고 되어 있으나 教科書는 統合을 위한 統一의 名稱을 갖지 못하였다.

中學校 一學年은 「공동생활」이라고 하여 過去의 「중등공민 I」의 內容과 거의 類似하나 “秩序”를 비롯한 “協同”, “社會的 功獻”등 社會倫理에 관한 內容이 전보다 더 強調되어 있다. 中學校 二學年은 「국가생활」에서는 從前의 「중등공민 II, III」에서 다루었던 政治生活과 經濟生活을 合한 것 외에 社會分野가 過去보다 擴大되었고 從前에 있던 民族의 問題를 다루었다 三學年은 「국제생활」이라고 하여 國際關係를 주로 하였다. 政治的 關係를 主로 했고 “經濟關係”, “文化向上”, “民族”, “人類共榮과 平和” 등을 다루고 있다. 全體 構造面으로 볼때 從前의 것에 比較해서 “國際生活”이 大幅增大되고 民族의 問題가 많이 다루어진 것은 時宜에 맞는 것이었고, 또한 民主政治에 대한 確信을 통한 反共思想의 鼓吹도 그러하나 “經濟”가 소홀히 取扱된 것은 時宜에 適合하지 못하였다.

高等學校에서는 從來와는 달리 教科上 通稱해서 「社會科」라 表示하고 있다. 「社會科」중 「公民」을 「一般社會」라는 새로운 教科名으로 代置하고 있다. 公民科가 包含하고 있던 道德科的 要素가 「道德科로 獨立됨으로 해서 表現上 變化도 가져온 것이었고 內容도 政治, 經濟를 中心으로 하고 社會, 文化를 加味한 形態로 머물지 않고 더 擴大統合의 形態를 取하고 있다. “基準令”에 나타난 「一般社會科」 內容의 領域을 보면 “政治, 經濟, 社會를 中心으로 하고 地理와 歷史를 背景으로 하여 民主社會의 公民的 資質을 伸張함⁽¹¹⁾”이라고 되어 있다. 그 目的에 있어서는 公民科와 一致되고 있으나 內容面에서는 高等學校에서의 統合社會科的 試圖로서 歷史, 地理를 導入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 이런 意圖와는 달리 歷史와 地理의 導入은 現實的으로 與件的 制約을 받아 實際로는 公民科와 一般社會科가 同一한 것이 되고 말았으며 教科書의 內容도 그러했다.

高等學校에서의 「一般社會科」의 內容을 學年別로 보면 一學年에서는 「정치와 사회」라고 하여 政治를 中心으로 社會, 文化가 加味되어 있고, 二學年에서는 「경제와 사회」라고 하여 經濟 一邊倒로 되어 있으며, 三學年에서는 「문화의 창조」라고 하여 倫理, 哲學, 文化 一般을 그 內容으로 하고 있다. 全體 構造面으로 볼 때 從前의 것과 大同小異하나 다만 三學年의 「倫理編」이 「문화의 창조」로 改稱하고 倫理面을 極小化하고 哲學과 文化 一般이 中心內容으로 되어 있다는 點이 다르다. 그 까닭은 道德科가 따로 獨立했기 때문이라고 간주된다.

道德科的 要素는 當初 公民科에 包含되었었다는 점으로 볼때 「道德科」에 관한 論議는 「社會科」 및 「一般社會科」와 關聯하여 다루어 보기로 한다.

(11) 上揭書, p. 236.

中學校의 道德은 「社會生活科에 配當된 35 時間數中 年 最低 道義 教育을 위한 活動에 應當하여야 한다. (12) (基準令 第二條)고 하여 形式上 「社會生活科」에 包含되어 있었으나 施行에 있어서는 別途의 教科書에 의한 道德教育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13)

高等學校에서는 “基準表”에 「社會科」중 「道德」으로 表示되고 그 內容에 대한 說明에서 “倫理, 道德을 中心으로 禮儀를 올바르게 指導함”(14)으로 되어 있어 教科的 性格이 뚜렷해졌다.

이때의 社會科의 構造로 보면 一般社會, 歷史, 地理, 道德의 四分野로 되었고, 統合社會科의 概念을 導入하기 위하여 中學校는 「社會生活科」, 高等學校는 「社會科」라고하여 教科名을 初·中·高 다 같이 統一的으로 쓰게 되었다. 「一般社會科」는 高等學校의 名分의 統合社會科의 意味밖에는 지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公民」과 同一한 것이 되고 말았다.

3. 第二次 教育課程 改編(1963)——「一般社會」의 教科書 出現

4.19義學 및 5.16革命 이후 第三共和國에서는 革新的인 政策的 轉換이 있었다. 民族의 主體性 確立, 經濟發展計劃을 비롯한 近代化의 作業, 現實的 反共統一論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政策的 課題를 곧 教育的 課題로 받아 들여 教育課程 改編, 作業을 서두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全 教科教育 課程의 內容面에서 自主性, 生産性 및 有用性을 強調하게 되었다”(15)

그 改編 및 施行 過程을 보면, 1963년에 初·中等學校의 第二次教育課程이 改正 公布(1963. 2. 15) 되었고 그 施行은 늦어졌다. 國民學校의 教科書는 1964~1966년까지 每年 下級學年 부터 二個學年씩 三個年에 거쳐 改編 施行되었으나 中等 學校는 이보다도 훨씬 늦어졌다. 1966年度 부터 施行할 豫定이었으나 때마침 學制改編에 관한 論議가 활발하게 展開되어 保留되었다가 中學校는 1967년부터 高等學校는 1968年 3月 1日부터 施行되었다. (16) 第三次의 全面的 教育課程改正이 있기 전에 세차례에 걸친 部分改正이 있었으나(17) 이 중 1973年 8月 3日에 改正分布(文敎令 325號)된 것이 社會科에 관련 되는 것이 었다. 즉 民族 固有의 文化를 찾고 기르며, 國籍 있는 教育의 土를 넓히기 위하여 國史教育을 強化하기 위한 조처를 강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18)

「道德」은 종전에 社會科를 中心으로 하는 活動이었던 것이 이번 教育課程에서는 反共道德生活 領域으로 따로 獨立된 生活領域이 되었다. 道德教育을 強調한다는 措置에서 社會

(12) 上揭書 p. 234.

(13) 金泰泳, 前揭書, p. 191.

(14) 咸宗圭, 前揭書, p. 236.

(15) 李胎根, “中·高等學校 公民教育 內容의 變遷, 社會科教育, 第10號, 1977, p. 63.

(16) 초·중·고(인문·실업) 새 종합 교육과정 및 해설(사회, 국사), 교학도서 주식회사, 1977, p. 111.

(17) 1차부분개정은 1969. 9. 4(문교부령 제 251號), 2차 부분개정은 1973. 8. 31 (문교부령 제325號)——「社會科」와 관련 없음.

(18) 초·중·고(인문실업) 새종합 교육과정 및 해설 前揭書 p. 112.

科的인 領域에서 더욱 廣域的으로 分化된 것이었다. 第二次 教育課程에서 高等學校는 從來의 時間制를 單位制로 했고 系列制⁽¹⁹⁾를 導入했다. 그러나 單位制는 그 意圖로 불때 實効를 거두지 못했고 系列제도 嚴格히 適用되지 못하였다.

“이때 「社會生活科」⁽²⁰⁾라고 하는 名稱이 教育課程上 「社會科」로 바뀌어 初·中等學校를 막론하고 統一된 教科名을 使用하였다”⁽²¹⁾

中學校에서도 統合 教科로서의 「社會科」를 特色 짓되, 國民學校와 같은 完全統合 形態는 教授의 실지 면에서 隘路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學科別로 教育內容의 編成을 달리하는 方法을 취하였다.⁽²²⁾ 그리하여 教科書名은 통칭해서 「사회」라 하고 一學年의 「사회 I」에서는 國土地理 世界地理등의 地理의 考察을, 二學年의 「사회 II」에서는 國史 世界史등의 歷史의 考察을, 三學年의 「사회 III」에서는 政治, 經濟, 社會, 文化등을 中心으로 公民科的(一般社會科的) 綜合的 考察을 할 수 있도록 編成하였다. 그러니까 學年別 分野集中制의 統合形態가 됨으로써 우선 外形上 또는 名稱上 統合形式을 가지게 되었다.

中學校의 一般社會인 「사회 III」의 內容을 보면, 從前의 것과 大差는 없으나 政治面에서 共產主義 政治 批判⁽²³⁾이 附加되어 있고, 經濟面은 從前보다 體系의으로 擴充되어 있고 社會面에서는 從前의 “學校生活”을 除去하고 “現代社會의 理解” “社會問題”등 社會學的 面이 強化되었음은 政策的 내지 時代的 追勢로 보아 그 合當性이 있었다. 文化面은 從前에는 各學年에 分散되어 있던 것을 綜合한데 不遇하였다.

“高等學校에서는 教育課程 組織面에서 舊課程에 比하여 더욱 分化되었다.”⁽²⁴⁾ 從來의 「一般社會」는 課程上의 名稱으로서 政治 經濟를 中心으로 하는 統合 社會科的 性格을 內包하고 있었으나 第二次 教育課程에서는 이것이 二個 教科로 分化되어 教科書 名稱까지도 「一般社會」와 「政治 經濟」로 되어 있다. “政治 經濟”는 系列 專門課程으로 人文系와 職業系에 한해서만 과하게 되어 있는데 반하여 「一般社會」는 그 科目 性格의 一般性에서 볼 수 있듯이 系列區分 없이 高等學校 모든 學生들에게 共通科目으로 과하도록 된 것이 이번 社會科 教育課程의 한 特徵이다.⁽²⁵⁾

「一般社會」의 內容도 새로운 構造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內容을 보면, “民主主義”, 共產主義의 批判, “個人과 國家”, “國民經濟生活”, “國土建設”, “社會問題”, “民族文化의 向上”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政治, 經濟, 社會, 文化등의 廣域的인 內容으로 되어 있다.

(19) 人文, 自然, 職業, 藝能의 四系列.

(20) 從前에 國民學校와 中學校는 「社會生活科」 高等學校는 「社會科」로 表示되어 있었다.

(21) 李胎根, 前揭書, p. 63.

(22) 문교부, 중학교 中학교 교육과정해설, 대한교과주식회사, 1968, p. 144.

(23) 過去에는 共產主義 理論 批判 自體도 타브視하여 教科에 導入하기를 꺼렸으나 積極的 反共教育 내지 勝共教育을 위하여 한 單元으로 設定하기에 이르렀다.

(24) 李胎根, 前揭書, p. 63.

(25) 문교부, 高等학교 教育과정해설, 대한교과주식회사 1968, p. 109.

從前에 과하지 않았던 領域이 大幅 增大되었다. 즉 “共產主義의 批判”, “國土建設”, “會社問題”, “民族文化의 向上” 등이다. 이것들은 反共, 近代化, 民族主體性과 直接 關聯되어 있는 것으로 그 時宜性도 認定되거나와 政策的 反映이 큰 것이었다.

「政治 經濟」의 內容을 보면, “民主主義의 本質”, “우리 나라의 憲法”, “우리 나라의 民主政治”, “經濟構造”, “우리 나라의 經濟”, “國際關係와 國際情勢” 등이다 從前과는 달리 政治, 經濟에 있어 一般論보다도 우리의 政治, 經濟를 주로 다루었고, 從前에는 中學校에서만 다루었던 「國際」 領域이 高等學校에 大幅 投入 되었다. 이것도 自由友邦과의 紐帶를 強化해야했던 時宜性 또한 國家政策의 影響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一般社會」에서 다루었던 政治, 經濟와 「政治 經濟」의 內容이 重復되는 점이 많아 「一般社會」에 一元化해서 教授한 結果 「政治 經濟」의 教科書는 死藏되어 버렸고, 事實上 별 存置의 意義가 없었다. 이때 「一般社會」의 內容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로 構成하는 方向으로 定着되었다.

Ⅲ. 現行 一般社會教育課程의 檢討

1. 第三次 教育課程 改編(1973~1974)

1960年代 後半과 1970年代 初期에 거쳐 國際社會는 종전의 이데오르기적 兩極對立에서 實利追求的 多極關係로 轉換됨에 따라 和解 靄圍氣가 감돌면서 韓半島에서는 共產侵略의 危險은 高潮되었고 國內으로는 急激한 經濟成長에 隨伴해서 各種 社會問題가 나타나는 한편 精神의 解弛마저 나타나게 되었다. 이때 무엇보다도 國民精神教育과 國力集結이 우리의 主體의 存立과 發展을 위해서 要請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8년에는 「國民教育憲章」을 반포하여 國民精教神育의 準據로 삼게 되었고 1971년에는 勤勉, 自助, 協同 精神을 基底로 하는 새마을 運動이 展開되기 시작했고 1972년에는 十月維新이라는 國力主導의 體制를 構築하였다.

이러한 國家政策的 狀況은 教育的 狀況이 되어 무엇보다도 教育課程改編이 要請되었다. 따라서 社會科 教育課程과 一般社會 教育의 內容이 크게 變하지 않을 수 없었다.

教育課程 構成에 크게 影響을 미치는 教育學的 狀況도 달라져서 종래에 “經驗”과 “實踐”을 強調하던 經驗主義的 教育課程의 構成 原理의 強調가 “知識”과 “理解”(認知)를 強調하는 主知主義的 教育課程의 構成原理의 強調로 轉換되면서 學問中心의 教育課程(discipline-centered-curriculum) 運動이 展開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統合社會科의 立場에서는 하나의 큰 難關이 되었다. 왜냐 하면 經驗과 實踐을 基礎로 해서 統合社會科가 可能했던 것인데 知識과 理解를 重視하는 立場은 統合社會科를 崩壞시킬 危險性이 따르기 때문이었다.⁽²⁶⁾

(26) 廣岡 亮藏, “社會改造としての「社會科」への 視座”, 社會科教育, 第96號, 明治圖書廣 1972, p. 5.

이러한 社會的 教育學的 狀況下에서 中學校의 教育課程은 1973년에 改正(1973. 8. 3)되었고 이어 그 다음해에 그 施行을 위한 教科書가 出刊되었다. 高等學校 教育課程의 改正이 (1974. 12. 31)있었고 역시 그 다음해에 그 施行을 위한 教科書가 出刊되었다.

이 教育課程 改正에서 中學校 社會科의 構造가 크게 변하였다.

社會科의 「歷史」分野에서 國史가 社會科에서 따로 獨立되었고 反共道德의 生活領域에 속했던 「道德」이 「道德科」라는 教科로 되었다. 民族文化를 찾고 國籍있는 教育을 強化하며 道德教育을 強化한다는 立場에서 취해진 것이었다. 따라서 中學校 社會科에 變化가 생겼다 「사회 I」에서는 地理中心에 “社會” 附加, 「사회 II」에서는 世界史 中心에 “文化” 附加, 「사회 III」에서는 政治, 經濟, 社會 中心의 內容으로 되어 있다. 종래의 學年別 分野集中制에 若干의 變化가 생겨 社會는 「사회 I」에 一部分散되어 있고 文化는 「사회 II」에 一部分散되어 있다.

「사회 III」의 內容을 보면 “民主主義와 政治” “國民生活과 法律” “經濟生活”, “經濟開發” “現代社會와 우리 生活” “人類社會의 여러가지 問題”, “우리의 使命” 등으로 되어 있다. 全體 構造로 보아 종전보다 크게 달라진 점은 政治分野가 縮小되었고 國際關係도 分散縮小되었다. 그리고 法律分野가 새로이 大幅 導入되었으며, 經濟分野가 擴充되었고 人類社會의 共同 社會問題를 대폭 擴充하였다.

分野別로 자세히 보면, 政治面에서는 民主政治의 基本 理念이나 原理는 縮小되었고 十月 維新과 韓國民主主義에 관한 內容이 擴充되어 있다. 法律面에서는 종래에는 政治의 한 分野에서 社會規範으로서의 法律規範의 特色을 認識하도록 하는 水準에서 머물렀던 것이 이번에는 法律內容을 擴大해서 遵法精神을 強化하고 있다. 經濟面은 과거의 一般經濟原理 中心이 있던 것과는 달리 우리의 國民經濟 中心으로 展開되었으며, 社會面에서는 과거의 一般의인 社會論을 止揚하고 있다. 社會學的 根據을 바탕으로 한 內容이 導入되었으며 社會問題에서는 人口問題, 環境問題, 都農問題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高等學校에서는 「一般社會」라는 教科名을 없애고 「政治·經濟」, 「社會·文化」로 하였다. 과거의 「政治·經濟」를 합해서 兩教科로 再區分하고 一部를 補充한 것이 있다. 「政治·經濟」는 各系列 共同必須로 했고 「社會·文化」는 人文系의 選擇必須로 하였다.

「政治·經濟」의 內容을 보면, “우리나라의 現實과 民族中興”, “우리 나라의 民主政治” “우리 나라의 憲法” “國民과 法律生活” “國民經濟의 循環과 成長” 등으로 되어 있는데 教科名대로 政·經에 重點을 두고 있으며 全體 構造面에서 볼때 두드러진 것은 法律領域이 새로 設定되어 있는 것이며, 政治領域은 우리 나라 民主政治 즉 韓國民主主義에 重點을 두어 우리 나라 憲法에 많은 비중을 두었고 政治過程을 擴充하였다. 法律領域에서는 法律概說로부터 民法, 刑法, 經濟法, 行政法, 國際法등에 거쳐 廣範圍한 生活法律 中心으로 다루고 있다 經濟領域에서는 經濟一般論과 함께 韓國經濟 中心으로 되어 있으며 南北 經濟를 比較

가 새로운 면이다.

「社會·文化」에 있어, 과거에는 政, 經外的인 것들을 「一般社會」에서 綜合的으로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學問中心的·教育課程 運動의 영향을 받아 社會學과 文化人類學등의 學問的 基礎로한 內容이 大幅 增大 되었다. 教科書의 內容을 보면, “우리나라의 現實과 民族의 進路”, “우리의 社會와 文化”, “個人과 社會生活”, “社會變動과 文化”, “國家發展計劃” 등으로 構成되어 있다. 社會變動과 社會問題, 發展計劃등 當面 問題와 그 解決 方案에 관한 內容이 크게 부각되었다.

1979學年度부터 教育課程은 그대로 두고 모든 教科의 教科書의 細部內容을 일제히 改編하게 되었다. 「政治·經濟」 및 「社會·文化」의 內容은 전과 大差 없는 變化이나, 韓國社會의 變化와 挑戰에 賢明하게 대처하기 위한 現實的 課題를 더 鮮明하게 浮刻시키고 教科의 學問性을 높이는 方向으로 編纂되었다.

IV. 一般社會教育의 當面課題와 展望

1. 一般社會教育의 特色

우리나라의 一般社會教育은 社會科教育이라는 全體的 次元과 關聯시켜 그 變遷에 관한것을 檢討해 오는 가운데 그 全般的 傾向과 特色을 다음과 같이 要約 할 수 있다.

첫째, 社會科가 現代教育思潮를 具現하는 教科라고 한다면 社會科중 가장 中核的이고 現實的인 것은 一般社會教育이었다. 統合성과 社會性的 試圖라는 現代教育思潮는 一般社會教育에서 그 實現의 密度가 강한 것이었다. 社會科에서 一般社會, 歷史, 地理의 三者는 實質的 統合이 中等學校에서 이루어지지 못했고 外形上으로만 統合의 形態를 持續해왔고 때에 따라서는 第三次 教育課程에서와 같이 一部の 教科(國史)가 社會科에서 分科 獨立하는 例까지 있었으나 「一般社會科」에서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統合的 傾向을 比較的 繼續되어 왔다. 그리하여 韓國社會가 當面하고 있는 問題를 統一的으로 把握하고 解決한다는 立場이 계속적으로 堅持되어왔음으로 상당한 水準의 統合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社會性的 強調라는 觀點에서 보더라도 「一般社會科」는 民主主義 社會化를 위한 中核的 教科이었다. 公民教育和 一般社會教育이 實質上 同一意味를 가지고 있었으며 民主主義의 土着化라는 課程의 內容을 現實的으로 專擔된 內容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分明하다.

둘째, 一般的 教育目標 達成의 先導的 教科로서의 役割을 擔當해왔다.

教育의 社會的 機能은 점점 強化되고 있는 追勢에서 「社會科」의 役割이 增大되어 왔다. 一般的 教育 目標의 領域을 自我實現, 人間關係, 市民의 義務, 經濟的 能力등을 들고 있는데 이 目標들과 가장 直接的인 關聯을 가지고 있는 것이 「社會科」중 「一般社會科」임을 쉽

게 發見할 수 있다. 즉 政治, 經濟, 社會, 文化的 要素들이 이런 教育目標 達成의 一次的 教科內容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一般社會科」는 人間性教育의 主導的 教科로서의 役割을 擔當해왔다. 「公民」의 教育內容 중에 일찌기 民主主義의 倫理를 中心으로한 道德科의 要素를 包含하고 있었으나 道德教育을 強調하는 立場에서 다만 道德教科가 따로 되었을 뿐이며 道德科의 要素가 「一般社會」에서 除去된 것이 아니었다. 現在의 「道德科」 특히 高等學校의 「國民倫理」 教材內容 중에는 「一般社會科」와 連繫된 部分이 많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네째로, 韓國의 現實에 副應한 政策教科로서 國家政策에 가장 敏感한 教科이었다.

「社會科」가 轉換期에 社會救濟의 教科로서 誕生되었다는 點에서 政策教科의 性格을 本來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第二次 教育課程改編때부터 「一般社會科」의 教科書를 單一化해서 國定화한데는 政策教科로서의 特色이 顯著함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教科의 內容을 보더라도 韓國이라는 特殊 狀況을 配慮해서 教育課程改編이 있을 때마다 점점 韓國化된 教科內容으로 發展해왔다.

2. 一般社會教育의 諸當面 課題

1) 統合一般社會科 理論의 定立

「社會科」의 統合을 위한 努力이 繼續되어 왔으나 教育課程 理論의 變遷이나 政策變化의 영향, 그리고 그의 現實的 與件등으로 統合化에 많은 阻害를 받아왔었다. 經驗과 實踐을 바탕으로 한 實用主義 教科라는 점에서 그 統合教科의 正當性이 있었던 것인데 學問中心의 教育課程 運動의 影響은 統合에 赤信號를 가져왔다. 그리고 政策的인 次元에서 特定分野를 強調하고 있을 때 마다 個別教科로 獨立함으로써 社會科의 統合에 混線을 가져 왔으며 統合教科書의 편찬의 어려움이나 擔當教師의 問題등의 現實的 與件 때문에 統合에 支障을 招來해 왔던 것이다. 一般社會科의 경우 全體의 社會科 統合에 앞서 우선 統合이 잘 이루어져야 했으나 期待한 만큼 이루지지 못했기 때문에 歷史, 地理보다도 教科로서의 專門性이 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一般社會科가 그 동안 近代化라는 社會發展 내지 社會改善에 先導的 教科로서의 役割을 해왔던 점으로 미루어 政治, 經濟, 社會, 文化 分野를 “社會發展”에 焦點을 두어 統合의 原理를 適用한다면 그 統合이 보다 現實的으로 可能할 것으로 생각된다. 教科에서 보면 數學科와 科學科에서는 最近教科로서의 統一性을 크게 強調되고 있다. 數學科는 集合論의 見地에서 “數學은 하나이다”(mathematics as a whole)라는 統合을 생각을 하고 있다. 또한 科學科는 粒子에네르기論의 見地에서 物理, 化學, 生物, 地學 諸 領域間的 력을 나추고 있다.⁽²⁷⁾

(27) 廣岡 亮 藏, 前掲書 pp. 5-6.

一般社會科의 背景이 되는 社會科學의 理論的 統合 즉 統一的 社會科學의 構造가 形成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一般社會教育이 이루어진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이 分野의 學問發達 水準으로 보아 困難한 것이 現實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統合을 원하는 한 實踐的 統合을 하는 수 밖에 없다면 社會發展이 이라는 社會現象의 實踐的 核心에 따라 一般社會를 統合한다면 보다 向上된 統合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統合一般社會教育 理論이 定立되어질 때 教科로서의 位置가 確然해질 것이다.

2) 問題 豫防의 未來指向의 教育果程 構成

長期的 教育計劃의 發展은 教育課程 속에서도 具體的으로 實現되는 것이다. 그동안 一般社會의 教育課程을 보면 當面한 現實的 政策課題와 近視眼的으로 直結된 나머지 社會科教育의 理論에 이탈되는 경우가 있었을 뿐만아니라 社會變動의 趨向으로 보아 어느 程度 豫見될수 있는 政治, 經濟, 社會의 諸 問題의 豫防的 役割을 하는데 소홀히 했었다. 現代의 諸 社會 問題에 있어 解決的 次元보다도 豫防的 次元이 더욱 強調되는 것은 그 問題解決自體가 長期를 要하는 것이 一般的이고, 解決되었다 하더라도 그 問題의 傷痕이 잘 가시지 않는다는데 問題가 있기 때문이다. 一例를 든다면, 우리 나라가 그동안 계속 自然資源의 問題로 經濟的 難關을 겪고 있는데 이것의 問題가 이미 深刻해진 뒤에 비로서 一般社會科의 單元으로 導入되었다. 1973년에 있었던 教育課程改編과 이에 따른 二次에 거친 教科改編에서 뒤늦게 資源問題가 取扱된 것이 었다. 다른 나라의 社會科 教育課程에서 이미 오래전 부터 資源의 問題를 다루어 왔었다⁽²⁸⁾는 것을 감안해 보거나 產業社會의 變遷 追移에서 볼 때도 이미 充分한 暗示를 얻을 수도 있던 것이 었다.

가령 社會變動의 基本原因을 分析함으로써 社會變動의 結果에 隨伴되는 社會問題 특히 人類一般의 共通된 社會問題(人口問題·資源問題·環境問題등)를 豫見할 수 있을 것이며 既存의 産業화된 社會의 問題는 우리나라의 社會問題를 豫見할 수 있는 좋은 模型이될수도 있을 것이다.

一般社會教育은 未來의 善良하고 有能한 市民性을 기른다는 社會科教育의 目標 達成에 가장 直接的으로 符合되기 때문에 더욱이 未來指向의 教育課程의 構成이 要請될 뿐만아니라 公教育으로서의 中核의 位置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社會共通의 問題 豫防에 主導的 教科라는 점에서 未來指向의 教育課程 構成이 要請된다.

3) 一般社會教育學이라는 教科教育學 體制構想

教科教育으로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社會科教育이라고 한다. 社會科는 社會機能的 教育 效果가 어느 教科보다 클뿐만아니라 “教育課程 研究의 基礎分野⁽²⁹⁾”이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28) 1971 年度의 윌리엄의 社會科 教育 課程에서 “資源”을 社會科 教育課程構成의 基本概念으로 다루고 있었으며, 이전의 教科書에서도 충분히 다루고 있었다.

(29) 康宇哲, 前揭書, p. 4.

教育學의 發達過程으로 볼때도 教育基礎學, 教育方法學, 教科教育學의 順序로 發達해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教育現場의 改善에 관한 課題가 오늘날 教育學의 主課題가 되고 있는 것이다.

「社會科」의 경우 現實의으로 統合社會科는 國民學校에서는 經驗教科로서 實踐教科로서의 意義가 크기 때문에 그 適合性이 共認되어 있지만 中等學校 특히 高等學校에서는 知識와 理解의 教科로서의 意義가 크기 때문에 教科中心化되어 있다. 따라서 一般社會教育, 歷史教育, 地理教育등의 分科的 教科教育 理論이 社會科교육과 關聯하여 定立되어야 한다.

一般社會科教育學은 政治學, 經濟學, 社會學 文化人類學者의 重點 學問에 대한 學問的 研究로 통하여 一般社會科의 教科로서의 存立根據로 마련하고 이 分野의 固有한 教授, 學習過程의 原理를 探究하여 科學的 指導法을 밝히는데서 成立될 것이다.

이 分野의 學으로서의 專門性을 高揚하기 위해서 專門性을 高揚하기 위해서 專門家 養成을 위한 大學院의 最高學問 過程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一般社會教育이 國家・社會 및 教育全般에서 차지하는 중대한 機能을 遂行하기 위해서 이 分野에 대한 研究活動이 大學에서 부단히 展開되어 더욱 改善, 發展되어 나가야 할것이다⁽³⁰⁾.

3. 一般社會教育의 展望

첫째, 社會科중 一般社會科의 領域이 점점 增大되어 갈 것이다.

社會科의 새로운 動向의 하나로 社會科學의 強調를 들고 있다.⁽³¹⁾ 만일 社會科가 충분한 새 社會科로서의 機能을 發揮하려면 社會科에 있어서 歷史教科의 傳統的 支配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政治學, 經濟學外에 社會學, 人類學, 心理學등에서 얻는 資料를 採擇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傾向은 “社會科에 대한 觀點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意味하고 歷史中心의 社會科學習은 概念的 接近法이나 探究的 接近法에도 問題를 提起하러니와 그 보다는 個人으로 하여금 社會를 올바르게 理解하게 하는데 不足하며 個人을 民主主義 社會에서 善良한 市民으로 發達시키기 어렵다는 信念에서 비롯된 것이다.”⁽³²⁾

그렇다고 보면 社會科의 內容上의 變化는 一般社會科 領域의 擴大라 볼 수 있다. 未來指向的인 社會科 教育을 위한 內容의 大部分은 一般社會科에 包含될 것이다. 가령 “豫見할 수 있는 것은 理地나 歷史보다 더 重要한 科目들 즉 人間關係論, 人口學, 情報理論……등 아직은 우리 귀에 익지 않은 새 學問이 登場할 것이며 기존 學問중에도 民族學, 言語學, 環境學, 文化人類學등이 教科內容 안에 더 큰 比重을 차지 하게 될 것이 分明하다”고 한다.⁽³³⁾

(30) 李榮基, 崔鉉燾, “大學社會科教育의 變遷”. 社會科教育 第10號, 韓國社會科教育會, 1977, p. 85.

(31) D.M. Fraser, “The changing scene in social studies”, *Social studies curriculum development; projects and problems*, 39th yearbook, NCSS, 1969, p. 24.

(32) Jose B. Bilasano, “Emerging trends in social studies education”, *Junior Citizen*, Teacher's edition, Vol. 1, No. 2, July 19, 1971, p. 5.

(33) 康宇哲, 前揭書. p. 7.

둘째, 一般社會教育이 最初의 公民教育에서와 같이 人間教育을 위한 道德教育的 要素가 增大되어 갈 것이다.

産業化는 非人間化를 招來하는 것이 一般的인 追勢이고 人口過剩으로 資源枯渴 環境汚染 過剩競爭, 社會構造의 不均衡등을 가져오는 것이 一般的인 追勢라면 적어도 平和롭고 安定된 生活 내지는 生命의 存續을 위한 人間教育이 要請될 것이다. 따라서 一般社會의 各分野에서 倫理的 內容이 더욱 增大될 것이다. 즉 政治倫理, 經濟倫理, 社會倫理등이 많이 論議될 것이다.

V. 結 論

우리 나라의 一般社會科는 公民科로 出發하여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및 倫理의 綜合教科로 發展하여 왔으나 보다 實質的인 統合을 위한 努力을 傾注해야 할 것이다. 一般社會科가 經驗과 實踐을 강조 하는 實用主義的 教科로 부터 知識과 理解를 強調하는 主知主義的 教科로 發展하여 分科化하는 傾向마저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韓國 現實의 諸問題 解決이라는 公教育的 教科의 特性 즉 政策教科에 特性을 고려하여 實用主義的 要素와 主知主義的 要素의 長點을 結合해서 實質的인 一般社會科가 될 수 있도록 努力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現實 및 未來指向的인 一般社會教育이 되기 위하여 가장 適切한 統合一般社會科 構成의 原理와 理論을 定立해서 教科教育學의 體制를 構想할 必要가 있다.

앞으로의 一般社會教育에서 人間教育이 強調된다는 점에서는 經驗과 實踐의 實用性을 담은 綜合一般社會를 위한 努力이 持續되어야 하고 다른 한편은 社會發展에 關聯된 社會科學에 대한 學問的 研究 成果를 最大한 活用할 수 있는 措置가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The Development and Task of Civic Education in Korea

Lee, Young-Kee · Kim, Tai-Young

Abstract

After emancipating Korea from Japanese domination in 1945,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trends to emphasiz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s a main educational objective, social studies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were thoroughly influenced by the social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ut in reality, there were many problems to accommodate and practise the social studies to be strange to us, because we had no available text books, no trained teachers and no social understanding for it.

On that bad conditions and the complicate controversies for it, we had to practise it in the viewpoint of achieving the objectiv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ithout studying the theories of social studies and Korean educational situation. The social studies was composed of three kinds of subject; history, geography and civics. The civics of the three kinds of subject was very strange to us while others were traditional and popular in Korea. Comparatively the civics had got well integrated politics, economics, sociology, cultural anthropology and law. It was a core of the social studies, especially for the educational objective of democratic citizenship.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formal curriculum, the stages of development of civics are divided to three stages. Of course it was set in the study course under the army government in 1946 and it continued to 1954. But the formal curriculum by our government started as the first stage in 1955, and it continued to 1962. In this stage the civics was to be divided by "general social studies" and "morals" therefore in the curriculum structure it was different from the civic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civics in this stage had emphasised democracy, anti-communism and moral education.

The second stage continued from 1963 to 1972. The civics in this stage had emphasised the national identity, economic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 The third stage continued from 1973 to now. The civics in this stage have emphasised national defence, national coherence, national culture, national identity and Korean democracy.

Anyhow we can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civics in social studies in Korea as following;

1. The social studies has played roles that realize the modern educational trends, so that civics has been a core of social studies in the objectives and contents.
2. The civics has been initiative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general education.
3. The civics has played roles as an initiative curricula for human education (moral education)
4. The civics has been very sensitive to the national policies. Accordingly the tasks could be described as following;
 1. We have to inquiry the general theory of integrative civics.
 2. We have to prepare the future-oriented curriurlum to prevent social problems.
 3. We have to embody a structure of disciplinary education on the civics. In prospective civics, the contents of civics will be a magnified in the social studies and the factors of moral education for human education will be magnified in the contents of civics.